

컨텐츠 미디어 전문 기업 KBS N

KBS N은 KBS Drama(드라마), KBS Joy(엔터테인먼트), KBS N Sports(스포츠), KBS W(여성), KBS Kids(어린이) KBS N Life(교양, 다큐)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6개의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KBS N
이제 KBS N의 6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KBS N m a g a z i n e

VOL.13 APRIL. 2017 KBS N



아이 ♥ 뽀이스볼
달콤한 야구의 유혹

3인 3색의 매력에 빠지다!

원조 야구여신
최희



야구 좀 아는 여자
오효주



러블리 야구 메신저
이향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



www.KBSN.co.kr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7.4.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정책기획팀 정운재, 손영주,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www.thednc.co.kr)

CONTENTS

APRIL. 2017 VOL.13

- 04 **N focus**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창립 16주년 맞이한 KBS N
- 06 **N special 1**
봄바람 타고 돌아온 3인 3색 야구여신
<알림베> MC 최희, 오효주, 이향 아나운서
- 12 **N special 2**
KBS N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2017 KBO 리그 전망
- 14 **N special 3**
프로야구 직관, 올 시즌엔 2배로 즐겨라!
강성철, 이호근 캐스터가 전하는 야구 관람 노하우
- 16 **Review**
미치도록 치워주고 싶다
<닥터하우스> 리뷰
- 18 **On air**
생활밀착형 추리 스릴러
KBS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 20 **N news**
KBS N 미디어 설명회 개최
- 22 **Notice**
2017 프로야구 일정

* KBSN SPORTS 야구 중계 종료 후 곧바로 찾아갑니다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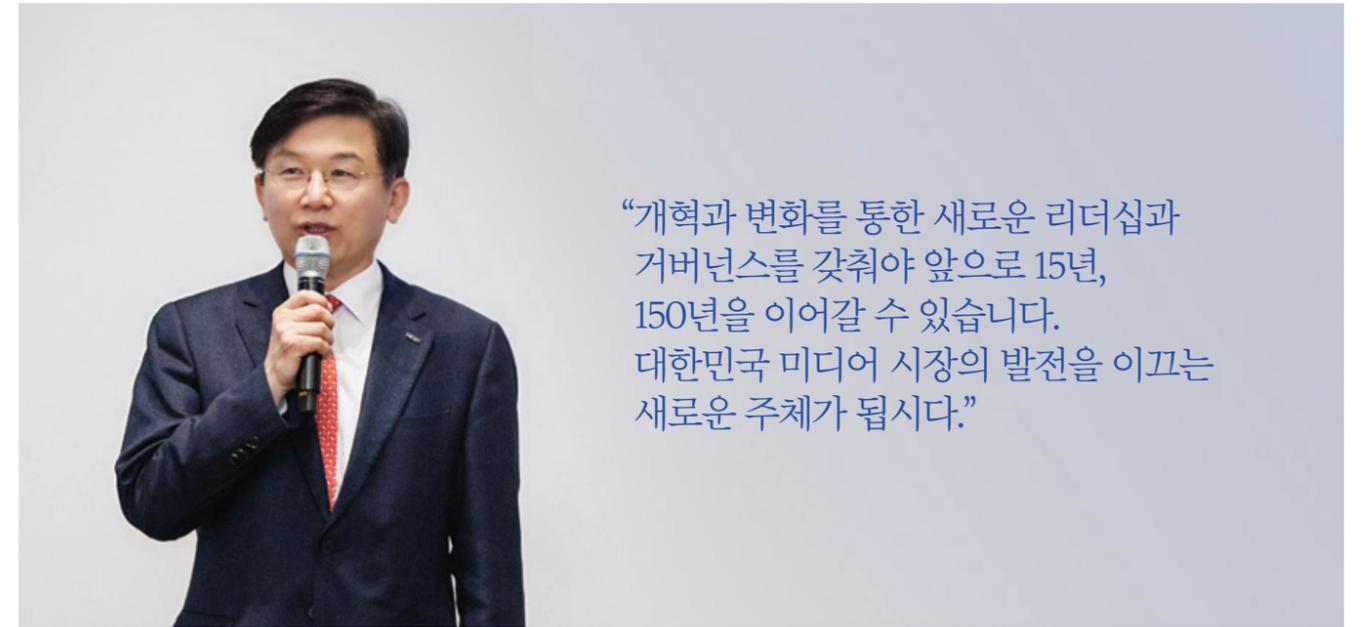
창립 16주년 맞이한 KBS N

지난 3월 8일, KBS N이 16번째 생일을 맞았다. 임직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16년간의 성장을 돌아보고 자축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 의지를 다지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축하와 격려가 오간 16번째 생일 풍경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8일, KBS N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6년간 KBS N은 우수한 콘텐츠와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험난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며 뉴미디어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비롯, 6개의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일궈온 KBS N의 오늘은 임직원 모두의 수고와 열정이 이룬 결과일 것이다. 16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직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며 장기근속 사원에게 감사패와 근속포상 시상을 진행했다. 강성철 아나운서의 사회에 따라 입사 15주년을 맞은 사원 16명과 입사 10주년을 맞은 사원 6명이 연단에 올랐다. 이준용 대표이사는 각 장기근속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하며 악수를 건넸다. 시상 후 기념 촬영을 준비할 때 후배 직원들이 연단에 올라 장기 근속한 선배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뜻밖의 꽃다발 선물에 선배 직원들은 쑥스러운 미소를 보이고 좌중은 웃음과 박수로 환호했다.



“개혁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갖춰야 앞으로 15년, 150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주체가 됩시다.”

위기를 타파하는 새 마음, 새 희망

이후 이준용 대표이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준용 대표이사는 “직원 여러분의 한 땀 한 땀이 쌓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임직원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16살을 맞은 KBS N의 생일을 축하하고 임직원과 KBS N이 이룬 그간의 성과를 칭송했다. 뒤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당부와 조언이 이어졌다. “미디어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신산업시대에서는 점차 자동화 무인화 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품의 구분도 모호해질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곧 위기”라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조직 문화의 전환을 주문했다. “국장, 팀장, 직원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 개혁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과 거버넌스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야 앞으로 15년, 150년을 이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주체가 되자”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꿈꾸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다가온다. 이준용 대표이사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마음에 새기며 KBS N 임직원은 미래에 대한 꿈과 변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봄바람 타고 돌아온 3인 3색 야구여신

 MC 최희,
오효주, 이향 아나운서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
<아이러브베이스볼(이하 '알럽베')>이 새 시즌을
맞아 드림팀을 꾸렸다.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최희가 원조 야구여신으로 왕좌 탈환을 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오효주, 이향 아나운서도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MC 자리를 지킨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프로그램에 생기를 불어넣을 3명의
MC를 소개한다.



최희



이향



오효주

돌아온 원조 야구여신의 넘사벽 클래스

최희

과거 <알럽베>를 4년간 진행하며 야구여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3년 만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한가?

설렘 반 부담스러움 반. 너무 좋아했던 프로그램에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귀 소식에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고 특히 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알럽베>를 할 때 가장 행복해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구여신' 호칭, 다시 듣고 싶은지?

다시 듣는다면 영광이죠. 하지만 야구 아나운서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쁘고 아름다운 여신의 이미지보다 친근하고 전문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역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싶어요.

3년 전의 최희 VS 현재의 최희, 달라진 점은?

제 나이가 30대가 되었다는 거?(웃음)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급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MC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죠. 과거 <알럽베>를 진행할 때 익힌 노하우에 지난 3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며 쌓인 경험까지 녹여내서 더 노련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프링캠프에 동행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났는지?

감독님과 코치님, 심판분들 모두 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수들은

절반 이상이 처음 인사 나눈 친구들이었어요. 롯데 김원중 선수를 인터뷰하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죠. 시간이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관계도 넓혀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효주, 이항 아나운서와 다른 최희 아나운서만의 장점이나 강점은?

두 친구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이항 아나운서는 예쁘고 상큼하고 오효주 아나운서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요. 색깔에 비유하면 향이는 핑크, 효주는 블루 느낌이에요. 저는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선배로서 후배들의 다채로운 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끌어나가는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최희 아나운서에게 <알럽베>란?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하는 이름. 처음 맡은 대표 프로그램이고 많은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으니깐요.

<알럽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이번 시즌 <알럽베>에 저의 전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시청자들, 야구팬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역시 <알럽베>다"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청률까지 잘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이번 시즌 <알럽베>에 전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움을 주는 게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알럽베>와 함께 매일 밤 편안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꼼꼼 똑똑 당당 야구 좀 아는 여자 오효주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편한 마음이에요. 최희, 이항 아나운서 등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니깐요.

지난해 <알럽베> MC로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처음에는 겁 없이 시작했는데 시즌이 진행될수록 걱정과 부담이 커져서 스스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엔 더 편안하게 방송을 즐기고 싶어요.

최희, 이항 아나운서와 차별되는 오효주 아나운서만의 강점은?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웃음) 저는 자료 정리에 좀 강한 편이에요. 주어진 대본을 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야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기사를 찾아보고 궁금한 점은 해설위원 분들께 물어보면서 백업 데이터를 만들죠. 야구 영화나 책도 즐겨 보고요.

<알럽베> MC가 되고나서 달라진 점을 꼽자면?

예전에도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이젠 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에게만 집중했지만 지금은 리그 전체를 보게 되고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눈이 가게 되고, 잘 하는 선수, 이기는 팀뿐 아니라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와 팀에도 마음이 더 가게 되고요.

이번 시즌 <알럽베>의 기대 포인트는?

MC가 다양해진 만큼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어요. 어느 요일에 틀어도 예상 못할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 3사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 중 <알럽베>의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를 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움을 주는 게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알럽베>와 함께 매일 밤 편안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상큼 발랄 러블리 야구와 사랑에 빠뜨리는 매력 이항

새로운 시즌에 임하는 마음가짐?

지난해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 올해는 즐겁고 밝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 스스로 틀을 깨고 재밌고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세대 야구여신으로 많은 야구팬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상암동 문채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고맙고 좋죠. 처음엔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무언가에 빗대면 더 각인되기 쉽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게 된 소감은?

<알럽베> 팬으로서 1세대 야구 여신의 방송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최희 선배님과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취재 때 동행하며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최희 선배님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희 선배님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우신데 저는 수다스럽고 발랄하거든요. 서로 극과 극의 다른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항 아나운서만의 장점이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러블리함을 드러내서 시청자들이 야구와 사랑에 빠지도록 주문을 걸고 싶어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이번 시즌은 단연 '돌아온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활약이 기대돼요. 한화의 슈퍼 용병 오간도 선수도 눈여겨봐야 할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KBO와 <알럽베> 모두 더 많이 사랑받고 관심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러블리함을 드러내서 시청자들이 야구와 사랑에 빠지도록 주문을 걸고 싶어요”





이용철



조성환



장성호



안치용

KBS N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2017 KBO 리그 전망

1강, 그리고 치열한 중위권 싸움

프로야구 관중 800만 명의 시대. 뜨거운 관심과 열기만큼 구단별 순위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용철, 조성환, 장성호, 안치용. KBS N을 대표하는 4명의 해설위원을 만나 봄 야구의 이슈를 짚어보고 판도를 예측해봤다.

스토브리그 효과와 이승엽의 은퇴 프로야구 흥행 요소

Q. 2017 KBO리그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이슈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용철 규모가 커진 만큼 KBO의 수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엘리트(LG, 롯데, 기아)가 부활해서 프로야구의 봄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또 두산의 3연패 대업 달성 여부와 이승엽 선수의 은퇴도 이번 시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치용 기아와 LG가 스토브리그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며 야구팬의 관심을 끌어 모았는데 그러한 투자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장성호 이번 시즌부터는 스트라이크존이 넓어지면서 투수들이 던지기 더 쉬워졌는데 이런 변화가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Q. 주목할 만한 팀과 선수를 꼽자면?

이용철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시즌을 맞은 이승엽

두산의 강세 속 기아, LG를 필두로 한 중위권 불꽃 접전 예상

Q. 리그 순위를 예측한다면?

이용철 두산의 강세 속에 기아와 LG가 4강권에 근접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화도 몇 년 동안 선수를 보강했기 때문에 올해 전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위권인 KT를 제외한 팀들 모두 와일드 카드 티켓 한 장을 두고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치용 저 역시 두산의 1강을 예상합니다. 지난해 우승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상위권을 지킬 것 같아요. 그 뒤로 LG, NC, 롯데, 기아가 중위권 다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조성환 두산 1강에 기아, LG가 상위권에 오를 것 같고 NC, 삼성, SK가 4, 5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선발진이 좋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많아요. 두산과 LG는 마운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보일 것 같고 기아는 타선으로 승부하는 팀이라 변수가 많은 편이죠.

장성호 KT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력이 상승되어서 혼잡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5강을 꼽자면 두산,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대스타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한다는 게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기도 하고요.

조성환 구자욱 선수가 이승엽 선수의 멋진 퇴장을 위해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캠프에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고, 스타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치용 스토브리그의 주역이었던 최형우, 이대호 선수 등 거물급 선수들의 영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팀으로는 기아와 삼성이 기대됩니다. 기아는 최형우 선수가 영입되며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 양현종 선수가 잔류하는데다가 김선빈, 안치홍 선수가 함께 뛰기 때문에 전력이 막강하죠. 삼성의 타자인 다린 러프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좋은 기량을 갖고 있어서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예요.

기아, LG, SK, 삼성. 한화는 외국인 선수들을 보강했지만 구질이 단조로워서 고전이 예상되고 넥센은 작년에는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염경엽 감독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공백이 느껴져요.

Q.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이용철 KBO가 멋진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갖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전하겠습니다.

안치용 1cm, 한 발 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명하고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조성환 선수들에게 약이 되는 냉철한 조언도 건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짚어주는 예리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장성호 설참신도(舌斬身刀)라고 하죠. 지난해 해설을 하며 말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 시즌에는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직관, 올 시즌엔 2배로 즐겨라!

KBS N 강성철, 이호근 캐스터가 전하는 야구 관람 노하우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쯤 야구장을 찾아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야알못(야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구장은 너무 넓고 광활한 미지의 공간이다. 목적별 좌석 선택부터 각 구장별 관람 노하우까지. 강성철, 이호근 캐스터가 알려주는 야구 직관 꿀팁을 알아보자.



좌석 선택! 이것만 알면 재미 두 배

투수의 구질이 보이는 숨은 명당 3루 외야석

3루 외야석 쪽은 야구 고수 사이에서 명당으로 통한다. 투수의 투구 궤적을 볼 수 있어 어떤 공을 던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구, 변화구, 커브볼, 슬라이드볼 등 구질과 타자의 스윙이 잘 보여 경기의 몰입감이 더 커진다.

*본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경기장별 좌석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과 같은 눈높이로 익사이팅존

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선수와 같은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다. 하지만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헬멧을 대어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흥 폭발 재미 폭발! 1. 3루 응원지정석

대부분 1루 쪽에는 홈팀, 3루쪽엔 원정팀 응원석이 자리하고 있다. 구단 대표 응원가와 선수별 등장 음악 등 다양한 응원가와 울동이 끝없이 이어져 흥겹고 열정적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경기의 흐름을 한 눈에 홈 뒤 중앙 내야석

넓은 시야로 경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1루와 3루 사이, 홈 바로 뒤쪽 좌석을 선택하자. 그라운드와 한 눈에 들어와 경기 장면을 놓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연애하라 테이블 관람석

야구장에는 햄버거, 치킨, 커피, 맥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고 싶다면 테이블 관람석을 선택할 것. 한적한 분위기여서 연인끼리 오붓하게 경기를 즐기기에 좋다.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스카이박스

소파와 큰 테이블에 냉난방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집안(집에서 관람)하듯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 가족 단위 관람이나 회사 회식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현재 문학, 사직, 한밭, 마산, 포항, 수원, 광주 경기장이 스카이박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성철

이호근



각 구장별 관람 포인트



고척스카이돔

'돔'이어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준다는 게 최대 장점. 외야가 좁기 때문에 포수 후면석에 자리 잡으면 생동감이 최고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외야 중앙에 샌드파크와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1,3루 외야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족석을 피크닉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팔각형 야구장으로 좌석에 따라 다양한 뷰를 느낄 수 있다. 3루 내야지정석은 삼성 더그아웃 가까이 위치해 삼성의 골수팬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산야구장

타 구장에 비해 좌석의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스틸감과 시야 확보가 탁월하다. 1루 내야 끝에는 매트리스석이 있어 누워서 관람이 가능하다.



사직야구장

부산 사직구장은 A구역 1루 응원석이 명물이다. 선수를 가까이 보고 싶다면 더그아웃에 가까운 S구역 쪽도 추천한다.



수원 kt위즈파크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특징.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 티켓을 활용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다.



인천 SK행복드림구장

외야 그라운드 우측엔 홈런커플존, 좌측엔 잔디밭과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좌측 외야석 지하에 위치한 펍도 인천 구장만의 명소다.



잠실야구장

야구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니아라면 홈플레이트 뒤쪽, 본부석 위쪽인 옐로 지정석이 적격이다.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스카이박스, 가족석, 잔디석, 캠핑존 등을 갖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제격이다.

미치도록 치워주고 싶다



지난 3월 9일과 16일, <닥터하우스>에서는 개그맨 김학도와 가수 자두의 집이 차례로 공개됐다. 여타의 스타 부부 집 공개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안 가득 쌓인 짐이 혼돈의 산을 이루고 옛날 물건이 끝없이 발굴되는 곳. 당혹스럽지만 왠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계속 시선이 간다.

집 다이어트 전



김학도의 단칸방 생활 vs 자두의 쇼윈도 하우스

미모의 프로바둑 기사 한해원과 결혼해 세 아이를 둔 김학도의 집은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다. 스타 부부의 집이니만큼 화려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공개된 집안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거실과 주방 사이 한쪽 면을 차지한 책장에는 책이 아무렇게나 꽂여져있고 피아노와 김치냉장고 위에는 빨래 바구니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거기에 '단칸방에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쌓인다'는 특이한 철학 덕분에 안방에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생활하느라 다른 공간들은 제 기능을 잃고 방치

되어 있었다.

자두의 집은 '쇼윈도 하우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깔끔해 보였지만 커튼 뒤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옷과 신발, 각종 살림살이와 정리 안 된 물건들을 베란다에 쌓아둔 것. 남편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는 베란다에는 천장까지 물건이 쌓여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다 가릴 정도였다. MC 박미선과 서장훈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객원 MC 최민용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했다.

집 다이어트 후



잘 버려줘~ 잘 나눠줘~

문제적 집을 진단했으니 이제는 강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거행할 때. 김학도는 가장 복잡한 안방과 옷방의 물건을 거실에 늘어놓고 버릴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애 시절 일기장과 개그맨 데뷔 때 입었던 옷, 임부복 등 고대 유물 급의 물건들이 쏟아졌다. 추억은 가슴 속에 남기고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자두의 베란다를 차지한 물건을 빼는 데에는 5톤 트럭과 30여 명의 정리 인력이 동원됐다. 정리할 공간을 찾아 근처 체육관을 빌렸다. 물건을 정리하며 즉석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플라마켓을 열어 옷과 신발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닥터하우스, 잃어버린 00을 찾아드립니다

버리고 정리정돈으로 재탄생된 김학도의 집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 거실 한쪽 면을 가린 책장과 안방의 다섯 식구 침대로 쓰였던 소파가 빠져나가자 공간이 두 배로 넓어졌다. 창을 가리던 물건이 사라지니까 멋진 한강 뷰도 한 눈에 들어왔다. 비로소 집이 제 가치를 하게 된 것이다.

5톤의 물건을 떠안고 살던 자두의 쇼윈도 하우스도 <닥터하우스>의 손길에 의해 놀랍게 변했다. 베란다를 채운 짐이 사라지면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잃어버린 '남향집'의 장점이 도드라졌다. 햇살만 찾은 것은 아니다. 인감도장과 아끼던 신발, 충전기, 공인인증서 등 그간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물건도 되찾게 되었다. 여유롭고 밝아진 집안만큼 자두 부부도 평온과 행복을 되찾았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이렇게나 많다.



생활밀착형 추리 스릴러

KBS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신선한 설정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제작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추리의 여왕>이 베일을 벗었다. 최강희와 권상우가 추리퀸과 형사로 만나 치열한 두뇌게임을 펼치고 알콩달콩한 케미를 선사한다. '셜록과 왓슨'보다 멋진 '셜옥과 완승'의 등장이다.



<추리의 여왕>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방송
 KBSrama

셜옥과 완승의 치열한 두뇌게임 한 판

KBS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은 한국형 추리 수사극을 표방한다. 주인공 이름은 셜옥과 완승. 추리계의 전설적인 커플인 '셜록과 왓슨'을 연상시키는 이름처럼 <셜록> 못지않은 스릴과 재미를 예고한다. 뛰어난 추리 실력을 갖고 있는 비범한 여인 추리퀸 셜옥(최강희 분)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베테랑 형사 완승(권상우 분)과 엮이게 되고 둘은 환상의 공조를 이뤄 범죄에 맞선다. 범인의 뒤통수만 좇는 정형화된 수사물과는 달리 <추리의 여왕>은 한발 더 나아가 추리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해부한다. 마치 범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생한 심리 묘사와 허를 찌르는 사건의 전개로 쫄깃한 긴장감과 흥미진진한 쾌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르물의 몰입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촘촘한 극본과 노련한 연출도 필수일 터. <추리의 여왕>은 KBS 미니시리즈 경력작가 대상 극본 공모전 당선작과 <시그널>의 제작사, <굿닥터>의 김진우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몰입 100%, 생생한 캐릭터의 힘

<추리의 여왕>이 기대를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연진의 높은 싱크로율이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부터 스릴러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믿고 보는 배우 최강희가 추리라는 색다른 장르와 만나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킬지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주인공 셜옥은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허당기마저 보이는 평범한 여성이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180도 변해 숨겨둔 추리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평소 엉뚱 발랄하면서 미스터리한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온 배우 최강희는 이러한 셜옥의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 제작진의 감탄을 불러 모았다는 후문이다. 본능과 직감을 따르는 열혈 형사 완승을 연기하는 권상우도 액션과 코믹, 진지한 감성까지 아우르며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한다. 두 주인공 외에도 막강한 조연이 함께한다. 배우 김민재와 안길강은 생계형 현실 형사 캐릭터로 맹활약하고 영화 <똥파리>의 주역 양익준이 악역으로 등장해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긴장감을 더한다. 드라마 <추리의 여왕>은 4월 5일 첫 방송되며 KBS drama 채널에서도 방영된다.

‘Professional KBS N’ 2017 KBS N 미디어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8일, 16살 생일날이기도 이날 KBS N의 미디어 설명회가 200여 명의 광고주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프로야구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담은 “Professional KBS N” 슬로건을 필두로 프로야구 중계 관련 설명과 자체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광고 상품을 소개했다.



2017년 KBS N 미디어 설명회가 지난 3월 8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에도 광고주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준비된 200여 석의 자리가 촘촘하게 채워졌다.

KBS N 이준용 대표이사는 “광고주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 덕분에 그간 저희 KBS N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시청자와 광고주께 행복과 만족을 전하기 위해 고민해 왔고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눈여겨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알럽베>와 함께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야구 중계 명가인 KBS N은 올 프로야구의 뛰어난 맨파워와 제작 노하우를 앞세워 성공적인 중계를 거듭 선언했다. 스프링캠프 취재자 현장에 참석하지 못

한 이용철, 조성환, 장성호, 안치용 해설위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사를 전했다. KBS N 대표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인 <아이러브베이스볼(이하 ‘알럽베’)>의 MC들과 아나운서들이 무대에 올랐다. 최희, 오효주, 이향, 조은지, 이지수 아나운서가 차례로 등장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각 MC는 이번 시즌 <알럽베>의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각자의 포부를 전했다.

막강한 프로그램, 풍성한 광고 상품

뒤이어 이향, 조은지 아나운서가 KBS N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IMC 광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기능형 기획형 광고 등 더 풍성한 광고 상품을 설명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모든 순서를 마친 뒤 KBS N 송전현 부사장이 건배 제의를 건넸다. “올 한 해 저희 KBS N과 함께하시는 광고주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유년 N 대박” 힘찬 건배사에 광고주 모두 “대박”을 외치며 화답했다. KBS N의 자신감과 광고주의 단단한 신뢰가 빛난 시간이었다.



[동정] 이준용 대표, <도산아카데미> 인터뷰

KBS N 이준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4일(금) <도산아카데미>와 인터뷰를 갖고 KBS N의 비전을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디지털 플랫폼, KBS 본사와 콘텐츠 제작, OTT 플랫폼 진출 등 주력사업 계획을 피력했다.

KBS 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KBS N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지난 3월 9일(목) KBS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KBS N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방송캠페인을 기획·전개하는 등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선거 정책의 공감도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KBS N - 한국골프연맹(KGF), 업무협약 체결

KBS N은 지난 3월 17일(금)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에서 ‘2017 KBS N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골프연맹(수석부회장 최영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7 KBS N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선수 수급 및 운영 제반사항을 상호 지원하며, KBS N Sports 채널에서 중계방송을 비롯해 국내 골프 산업의 발전과 대중골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BS N, 2017 간부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20일(월) ~ 21일(화) 이틀 동안 곤지암리조트에서 ‘KBS N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묻는다’ 라는 주제로 2017 간부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KBS ‘미래기획2030’ - <4차 산업혁명,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 시청과 매직에코 최형욱 대표를 초청해 <다음 10년의 변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KBS N Sports, 2017 KBO리그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3월 29일(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KBS N Sports, 2017 KBO리그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KBS N 이용철, 조성환, 장성호, 안치용 해설위원을 비롯, <아이러브베이스볼> MC 최희, 오효주, 이향 아나운서와 캐스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KBS N Sports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올 시즌 최고의 야구 중계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각오다.

2017 KBO 리그



해설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용철

거침없는 입담과 명쾌한 직구 해설
장성호

숨겨진 1cm까지 파고든다
안치용

선수의 마음까지 꿰뚫는다
조성환

KBSN SPORTS 와 함께 하세요!

2017 프로야구 일정

월	일	잠실	고척	문학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사직	마산
3	31	한화-두산	LG-넥센	kt-SK			KIA-삼성			롯데-NC
4	1~2	한화-두산	LG-넥센	kt-SK			KIA-삼성			롯데-NC
	4~6	삼성-LG			두산-kt	NC-한화		SK-KIA	넥센-롯데	
	7~9	넥센-두산		NC-SK	삼성-kt			한화-KIA	LG-롯데	
	11~13	KIA-두산	kt-넥센	롯데-SK				한화-삼성		LG-NC
	14~16	kt-LG				SK-한화		넥센-KIA	삼성-롯데	두산-NC
	18~20	삼성-두산		넥센-SK	KIA-kt	LG-한화			NC-롯데	
	21~23	KIA-LG	롯데-넥센	두산-SK	한화-kt			NC-삼성		
	25~27	SK-LG	두산-넥센						삼성-KIA	한화-롯데
28~30	롯데-두산			LG-kt	넥센-한화	SK-삼성	NC-KIA			
5	2~4	NC-LG	KIA-넥센	한화-SK	롯데-kt		두산-삼성			
	5~7	LG-두산	SK-넥센			kt-한화			KIA-롯데	삼성-NC
	9~11	SK-두산				롯데-한화	LG-삼성	kt-KIA		넥센-NC
	12~14	한화-LG		KIA-SK	NC-kt		넥센-삼성		두산-롯데	
	16~18	NC-두산	한화-넥센	삼성-SK				LG-KIA	kt-롯데	
	19~21	롯데-LG			넥센-kt	삼성-한화		두산-KIA		SK-NC
	23~25	두산-LG	NC-넥센			KIA-한화	kt-삼성		SK-롯데	
	26~28	kt-두산	삼성-넥센	LG-SK				롯데-KIA		한화-NC
30~6/1	넥센-LG			SK-kt	두산-한화	롯데-삼성			KIA-NC	
6	2~4	NC-LG	두산-넥센			SK-한화	KIA-삼성		kt-롯데	
	6~8	삼성-두산		넥센-SK	LG-kt			한화-KIA		롯데-NC
	9~11	SK-LG				삼성-한화		넥센-KIA	두산-롯데	kt-NC
	13~15	LG-두산	NC-넥센	한화-SK				kt-삼성	KIA-롯데	
	16~18	NC-두산	롯데-넥센		한화-kt		SK-삼성	LG-KIA		
	20~22	삼성-LG		NC-SK	롯데-kt	넥센-한화		두산-KIA		
	23~25	롯데-두산	LG-넥센	kt-SK				한화-삼성		KIA-NC
	27~29	SK-두산				kt-한화		삼성-KIA	LG-롯데	넥센-NC
30~7/2	KIA-LG		삼성-SK	넥센-kt	두산-한화			NC-롯데		
7	4~6	kt-두산	한화-넥센	KIA-SK			롯데-삼성			LG-NC
	7~9	한화-LG			KIA-kt		넥센-삼성		SK-롯데	두산-NC
	11~13	넥센-두산		LG-SK	삼성-kt	롯데-한화		NC-KIA		
	14~16					올스타전				
	18~20	kt-LG	KIA-넥센	두산-SK		NC-한화			삼성-롯데	
	21~23	한화-두산	kt-넥센				LG-삼성	롯데-KIA		SK-NC
	25~27	넥센-LG			두산-kt		NC-삼성	SK-KIA	한화-롯데	
	28~30	KIA-두산	삼성-넥센	롯데-SK	NC-kt	LG-한화				
8	1~3	롯데-LG	SK-넥센				두산-삼성	kt-KIA		한화-NC
	4~6	두산-LG			SK-kt	KIA-한화			넥센-롯데	삼성-NC
	8~9	한화-두산		NC-SK			LG-삼성	넥센-KIA	kt-롯데	
	10~11	SK-LG	두산-넥센	KIA-kt		삼성-한화				롯데-NC
	12~13	NC-두산	한화-넥센	kt-SK			롯데-삼성	LG-KIA		
	15~16	kt-LG				SK-한화	넥센-삼성	NC-KIA	두산-롯데	
	17~18	KIA-두산	롯데-넥센	LG-SK	삼성-kt					한화-NC
	19~20	삼성-LG	NC-넥센		두산-kt	롯데-한화		SK-KIA		
22~23	NC-LG	삼성-넥센	두산-SK	한화-kt			롯데-KIA			
9	24~25	넥센-두산				KIA-한화	SK-삼성		LG-롯데	kt-NC
	26~27	LG-두산		한화-SK			kt-삼성		넥센-롯데	KIA-NC
	29~30	롯데-두산	SK-넥센		NC-kt	LG-한화	KIA-삼성			
	31~9/1	넥센-LG		삼성-SK		kt-한화		두산-KIA	NC-롯데	
	2~3	삼성-두산	KIA-넥센		SK-kt				한화-롯데	LG-NC
	5~6	KIA-LG		롯데-SK	넥센-kt	두산-한화	NC-삼성			
	7~8	kt-두산	LG-넥센					한화-KIA	삼성-롯데	SK-NC
	9~10	두산-LG		넥센-SK	롯데-kt	NC-한화		삼성-KIA		
12~13	롯데-LG	kt-넥센	KIA-SK			한화-삼성			두산-NC	
14~15	SK-두산			LG-kt	넥센-한화			KIA-롯데	삼성-NC	
16~17	한화-LG						두산-삼성	kt-KIA	SK-롯데	넥센-NC

* 경기 일정은 KBO리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